

온 겨레가 안겨 살 진정한 삶의 품

내 조국땅에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돐의 한희로운 아침이 밝았다.
 공화국창건 75돐!
 불려불수록, 음미해볼수록 끝없는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게 하는 숭엄한 부름이다.
 경사스러운 이 아침 사랑하는 조국땅을 더욱더 눈부시게 단장하며 떠오르는 아침해살을 바라보느라니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남다른 행운을 누리며 복받은 삶의 길을 걸어온 우리일가의 운명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나는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에 또 한페이지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길 위대한 조국의 일흔다섯번째 생일날을 맞으며 우리일가의 인생사와 더불어 새겨안은 진리를 다시한번 세상에 려치고저 한다.

할아버지가 안긴 품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려운형선생의 묘소에 보내신 화환

나의 할아버지는 우리 인민들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있는 몽양 려운형이다.
 품속에서도 햇빛이 그리워 자기의 호마저 몽양이라 불렀다는 나의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버지와 고모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할아버지에 대해 쓴 책들을 읽으면서 할아버지의 인생행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빛이 없는 만물의 소생에 대해 생각할수 없었이 운명의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떠나 참다운 인생에 대해 말할수 없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숙절없이 내리는 비도 겨레의 피눈물이 되어 내리던 그 시기 강도 일제의 군화발에 짓밟혀 한점 빛이 없는 철혹같은 어둠속에 잠겨 신음하던 삼천리강토였고 그래서 세상천지 둘러봐도 백의민족 불쌍도다며 가슴을 치던 우리 동포들이었다.
 설움중의 제일 큰 설움은 나라잃은 망국노의 설움이며 수난에 몸부림치던 그 시기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이 나라찾는 싸움에 떨쳐나섰던가.
 나의 할아버지도 일찌기 봉건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고자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중의 한사람이었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은 웅변과 뼈아픈 생각할수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길가에 나 서기만 해도 수많은 청중들이 자석처럼 몰려다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타고난 천성과

수들을 응당 국가적으로 표창하고 축하연을 베풀어주어야 하겠는데 나라를 빼앗겨 그렇게는 못할망정 떠돌아주어야 할 선수들을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일본인들만 절대해서야 되겠는가?》고 준철하게 꾸짖었다.
 지금도 사람들이 나라없던 그 시절을 되새겨볼 때마다 가슴아프게 떠올리곤 하는 《일장기말소사건》때에도 할아버지는 그 일이 너무도 내려가지 않아 나라가 없으니 취날릴 기발조차 없으며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고 가슴을 치며 통탄하였다고 한다.
 정말이지 딛고 사는 땅은 있었어도 민족의 존엄은 없었고 하늘에 태양은 있었어도 사람들의 가슴가슴은 망국민의 슬픔으로 짙은 어둠에 싸여있었다.
 바로 이런 때 보천보에서 불길기 라올랐다.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심을 안겨준 보천보의 거세찬 불길은 억압받던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재생의 밝은 빛이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감격하여 친지들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의 전승을 축하했고 《조선중앙일보》에 특별보도로 이 소식을 게재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튿날에 가서 불타버린 일제의 기관들을 보며 기쁨을 금치 못하였으며 백두산에까지 올라가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하여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만이 민족운명의 구원자이시고 전 조선의 유일한 령주이시라는 확신이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하기에 할아버지는 해방직후 미군강점으로부터 복잡한 정치적환란속에서도 허련, 홍명희선생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과 함께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나섰으며 수령님께 하루속히 서울에 오시어 혼란된 정국을 바로잡아주시길 요청하는 편지를 올리고 그이를 만나뵈옵기 위하여 직접 38°선을 넘 나돌았다.
 그 나날 할아버지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민족통일과 번영의 지름길이 있음을 깨우쳐 절감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가 나아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식으로 건국사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우리는 맞지도 않는 다른 나라의 옷을 입을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조선식옷을 만들어 입어야 한다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단호히 주장하시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누구도 따를수 없는 당력과 배짱 그리고 한없이 고결하신 인품과 덕망앞에 할아버지는 끝없는 매혹과 존경심이 끓어넘치는것을 견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조선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우리 겨레가 안겨살 품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품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고 서울로 나간 할아버지는 청

하였으며 겨레앞에, 후대들앞에, 력사앞에 남긴 절절한 당부였다.
 할아버지는 아쉽게도 공화국의 창건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아래 이 땅에 머지않아 진정한 인민의 조국이 일떠서게 되리라것을 확신했다.
 할아버지는 미국놈들의 사족을 받은 반동놈들의 총에 맞아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도 혼신의 힘을 모아 《조선...》이라고 불렀다.
 나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부른 조선, 그 조선은 바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품 떠나 못살아
 언제인가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는 영광의 자리에서 려운형고모가 《우리 형제 아홉남매중에 수령님의 품에 안긴 형제들만 살아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다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적이 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절세위인들의 저택에서 수량의 품을 떠나 우리 려세일가의 오늘에 대해 어찌 생각할수 있겠는가.
 돌이켜보면 할아버지와 하신 약속을 지키시어 아버지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나의 고모들에게 베푸신 사랑은 전부도 줄수 없는 따뜻한 아버지사랑이었다.
 그때 아버지수령님의 저택에 도착한 자기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와 한가족이라고 하시던 김정숙어머님의 다심하신 음성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신 길로 넓은 한 품에 안아주시고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라도 학습정형을 일일이 알아보시고 모르는것이 있으면 친부모의 심정으로 차근차근 일깨워도 주시며 부모들의 슬하를 멀리 떠나 외로움을 느낄새라 세심히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을 평생 잊을수 없다고 고모들은 종종 외우곤 하였다.
 그 나날 고모들은 자기들에게 돌리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이 하도 뜨겁고 고마워 서울에서 싸우고있는 할아버지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다.
 《...아버지, 저희 자매는 그동안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응석을 부리면서 자랐습니다. 배움이 한 없는 기쁨이 되고 삶이 한

없는 사랑속에 더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였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978년이 다 저물어가던 어느날 아버지가 여느때없이 일찍 들어오시더니 다짜고짜로 어머니의 손을 잡아 흔들며 이제 인차 평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는것이였다.
 아이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던 나는 아버지가 왜 그토록 흥분했는지 이해할수 없었다. 그렇게 떠난 그 길에 아버지가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오러 가는 영광의 길인줄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
 당시로서는 나의 아버지도 나도, 우리 려세일가가 모두 그 영광의 길이 어떻게 마련된것인지 알지 못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려세일가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고계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아버지의 형제들이 한 할 한시에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도록 크나큰 은정을 돌려주셨던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사랑이 5년이나 늦어진 감동적인 일화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아버지와 고모들은 수령님을 모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는 더없는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주시고 주시어도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듯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수령님께서 려운형선생을 잊지 못하시듯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잊지 못하신다고, 더구나 그들중 두 딸은 광복직후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었다고 하시며 그들이 일찌기 부모를 잃고 얼마나 외로웠는가고, 이제라도 모니 온 평양에 모여서 살게 하겠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우리 가정은 온 나라 인민들 누구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수평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그날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불러앉히고 너희들은 우리 려세일가를 잊지 못해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된다고, 우리 려세일가는 공화국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시였다.
 은혜로운 그 품속에서 그후 아버지는 우당 부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으로 일하였

려운형선생의 가족



려인혁 (려운형의 손자)